

은행나무로 절집·마을 하나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② 용문산 용문사



신점리

속세의 번잡함일랑 벗어나고 무량정수에 입성 하라며 계곡물소리가 자꾸 따라온다. 일주문을 앞에 두고 나무판에 쓰인 문구가 선문답을 나누자고 한다. "흐르는 시간과 나 사이에 아쉬운 것은 시간이 아니라 순간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신"이라며 화두를 던진다. 7월의 태양을 머리에 이고 늘어지는 풀과 마음, 얼음냉수 한 그릇으로 갈증을 해소한듯하다. 귀밭을 스쳐가는 작은 솔바람에도 감사하고 짝을 부르는 새소리도 세계를으며 걷는다. 경내에 들어서자 푸른 용문산 자락이 외곽 품에 안긴다. 몸 안에 푸른피가 도는 느낌이이다.

용문사는 신라 신덕왕 2년 대경 대사가 창건하였다는 설과 진덕여왕 3년 원효 대사가 창건하였다는 설이 있다. 고려 우왕 4년에 지친 대사가 개풍 경천 사로부터 대장경을 옮겨 봉안하였고 조선 태조 4년 조안 화상이 중창불사를 하였다.

순종 원년 의병의 근거지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일본군이 점집을 불태워 터만 남아 있는 곳에 취운 스님과 태욱 스님이 불사를 시작하였다. 대웅전, 삼성각, 범종각, 지장전, 관음전, 요사채, 일주문 등을 새로 중건하고 불사리탑도 조성하였다.

용문사의 유래를 잘 알고 있는 양기석옹이 역사는 바로 써야 된다고 의미 있는 말을 했다. "용문사 창건을 신덕왕 2년에 했다고 하는데 은행나무 안내문에는 의상 대사가 나무를 심었다는 문구가 있어요. 신덕왕과 의상 대사는 살았던 연대가 약 300년 차이가 나거든요. 신덕왕은 신라 53대 임금이고 의상 대사는 신라 30대 문무왕 때 살았기 때문이지요. 차라리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의 높이와 넓이도 자로마다 틀려서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후손들에게 바로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용문사 사천왕문 자리에는 은행나무가 남아있다. 천연기념물 30호인 은행나무는 신라 마의태자가 나라 잃은 슬픔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나무가 자라는 동안 많은 전쟁과 화재가 있었지만 은행나무는 다행히 화를 면했다. 사천왕전이 불타 뒤부터 천왕목(天王木)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군에서 추진한 놀이공원 용문산의 애물단지 취급 무분별한 개발로 마을·절 문화공간만 잃어버려 최근 절집서 불교용품점 유치 마을과 불편한 관계

은행나무는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소리 내어 번고를 알렸단다. 그런 연유로 조선 세종 때 정삼품보다 높은 당상직첩을 하사받은 명목이 되었다. 사하촌 신점리 사람들도 신령스런 은행나무를 숭배하게 되었다. 매년 음력 3월 3일이면 절집에서도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자손의 무병장수를 위한 은행나무대제를 봉행하고 있다.

"신점리가 사하촌으로 형성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없는 사람들이 절 땅에서 많이 살았지요. 총무원에서 재산관리를 위한 스님 한 분을 발령 냈는데, 집 없는 사람들이 스님에게 집짓고 살게 땅이나 좀 주시오 하면 땅을 주었지요. 일 년에 쌀 한 두 말 내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 때는 절집과 사하촌이 협조하며 가족처럼 살았지요. 화전민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산을 개간하기도 하고 절집 농사도 지어주며 살았지요."

"사하촌이 국민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절 땅에 살

던 주민들이 내 땅에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었지요. 군에서 절 땅을 사서 상가를 조성해 마을사람들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신점리는 160세대가 어울려 산다. 대부분 장사를 해서 돈을 만지는데 예전에 식당을 한 사람들은 뺨방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다. 식당에 들어서자 내 카메라를 보더니 아주머니가 사진을 찍으러 왔느냐며 친절하게 옛날이야기를 꺼냈다. "용문산 계곡이 좋아 여름이면 야영객들이 많았지요. 군에서 놀이공원을 추진해 놀이기구가 들어오면서 야영객들이 줄었어요. 주민들은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공해를 피해서 쉬러 오는 손님들에게 맞지 않을 것 같아 반대했지요. 차라리 겨울철에 손님이 없을 때 눈썰매장이나 만들어 겨울장사를 하게 해달고 했습니다. 지금 놀이공원은 애물단지입니다."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감춰두고 있었다.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이라면 몰라도 국민관광지에 불과한데 생각 없이 개발하여 사하촌과 절집 문화공간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그래도 등산객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산이 좋고 물이 좋기 때문이란다.

용문사에서서는 고승들도 많이 나왔다. 무학 대사와 정지 국사도 용문사에서 정진을 하였다. 스님들이 불경공부에만 열중하느라 산문 밖 출입이 없어서 그런지 사하촌 사람들과 절집이 교류하는 문화

는 거의 없다고 했다. 서로 이해가 없길래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절집에서 상가를 유치하려고 하자 아랫마을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절집에서는 이미 불교용품 판매점 허가를 내놓고 있어서 서로 마음 당기기를 하고 있다.

사하촌에는 불교신자와 기독교 신자들이 어울려 산다. 장로교회가 두 개나 있다.

"주민들은 1년에 한 번씩 산신제를 지내는데 이장이 제주가 됩니다. 마을 화합차원에서 제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지요. 그런데 지금 이장이 기독교 인이라 다른 사람을 선정합니다.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의식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선근공덕을 쌓으며 살면 그뿐이지요."

정미의병의 발상지답게 양평 사람들은 부처가 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도량을 지니고 사는 듯했다.

양평=김상미(수필가·본지 객원기자)



용문사 은행나무.



용문사 경내.

보 호국범화경사경봉안대법회 축

순교성사 허용보우·환성지안대사 석상제막식



귀의삼보하옵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크신 가르침이 온 세상에 전해져서 가정마다 화목의 꽃 피우고, 가족들은 건강하고 편안하며, 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시길 두 손 모아 발원합니다. 평화통일 기원의 성지이자 불교중흥의 순교성지인 제주도 평화통일 불사리탑에서는 광복 62주년을 맞이하여 조국의 평화통일과 호국안민을 발원하는 범화경 사경 봉안 및 독송 기도 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범화경은 모든 가정을 부처님 상주 설법하시는 청정도량으로 가꾸고 사경하는 사람들을 성불의 기운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범화경 독송 기도의 위신력으로 국가와 겨레의 운이 맑고 깨끗해져서 평화통일의 기운이 활짝 열리어 7천만 민족의 염원이 이루어지길 부처님전에 발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불자님들의 성원아래 제주도의 평화통일불사리탑에 조선시대 불교의 햇빛이었던 허용당 보우대선사와 환성당 지안대종사 두 스님의 석상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보우선사는 조선의 불교말살 정책 하에서 쓰러져가던 불교를 중흥시켜 폐지됐던 선교 양종과 승과계도를 다시 일으키고 이를 통해 사산·사명 대사와 같은 큰 인재를 발굴하여 불교계가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 선두에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든 분입니다. 환성 지안대사 또한 화엄의 대강백으로서 불교중흥을 위해 애쓰시다가 금산사 법회에 운집한 대중을 보고 위기를 느낀 유생들의 무고로 제주도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분 모두 이곳 제주도에 비참하게 순교하셨던 바 이분들의 노력과 회생에 의해서 조선시대의 불교가 회생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불교 조계종 평화통일불사리탑에서는 두 순교성인의 불교중흥의 뜻을 받들고자 오는 8월 16일 교계 큰스님들과 지역유지 및 5,000여 불자들을 모시고 두 분 대사의 석상제막식을 봉행하고자 하오니, 이 성스러운 행사에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앙망합니다.



허용당 보우대선사



환성당 보우대선사 순교비



환성당 지안대종사



환성당 지안대종사 순교비

▶ **모택공 직할교구 평화통일불사리탑** 주지 석경태, 회주 석도립, 양평

- **일시** : 불기 2551년 8월 15일 ~ 17일(광복절3일기도) **법화정사 (02) 928-1331**
- **장소** :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교구 평화통일불사리탑(제주도 조천읍, 전화 064-783-8801)**

순교성사 허용 보우·환성 지안대사의 석상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뜻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후원을 바랍니다. 석상건립후원계좌 : 신한은행 321-11-011078 예금주 : 김 암(석도림)